다산포럼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금 추 세로 보면 하루 이틀 안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큼 국민의 분노가 치솟 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 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면에서 걷 잡을 수 없이 퇴행하고 있다. 그는 지극히 무능한데 무도 하기까지 하다. 위법과 위헌까지 범하여 탄핵의 필요조 건만이 아니라 충분조건도 채워졌다. 보수층과 기득권 의 인사조차 점점 탄핵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필자 또한 나라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 시 대정신이자 과제인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으로 나라 의 방향이나 정책을 잡지 않는 탄핵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의 힘 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요청이었던 적폐청 산과 사회대개혁을 하나도 추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중요한 것

라 윤석열 정권을 배태한 장본인임을 경험하지 않았는 가. 그럼에도 또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려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 있다. 기후위기 로 파국이 오는 시점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상위 10%가 절반의 소득과 7할 이상의 자산을 점유할 정도 로 불평등이 극대화하고 있는데, 경제학자 에스테반 마이토(Esteban E. Maito)는 지금 추세로 가면 2056년에 선진국 기업의 평균이윤율이 0%에 이른다 고 밝혔다. 이의 극복을 말하면 이상적이거나 비경제 적이라고 말하지만, 맥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등의 연구팀은 올해 '네이처(Nature)'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 연간 피해액은 매년 38조 달 러(약 5경 2139조 원)에 이르는데 이를 극복하는 비용 은 그 6분의 1인 6조 달러(약 8250조원)에 지나지 않 는다고 발표하였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경제적으로도 남는 사업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노동을 유연화하고 공공영역을 사영화하고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이윤이 올랐는데 왜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 모두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데이비드 코츠(David M. Kotz)는 2008년 부터 2018년 사이에 미국 기업의 평균이윤율이 8.15% 로 상승했는데 자본의 평균 축적율은 1.89%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왜 이윤율이 높아졌음에도 축적율 은 2% 이하로 떨어졌는가. 바꾸어 말하여, 왜 이윤율 이 오르면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투자를 하여 경기가 활 성화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반대인가. 부채와 지대

(rentier) 전환 때문이다. 2022년 전 세계의 부채 총 액은 235조 달러로 GDP의 238%에 달한다. (국제통 화기금) 이윤율이 떨어지자 자본은 토지만이 아니라 금융, 신용, 공공영역과 공공서비스, 천연자원, 디지털 플랫폼을 사영화하여 지대로 전환하였다. 모두가 지주 처럼 불로소득에 환장하면서 자본주의를 떠받쳐주던 기업가정신과 기술 투자는 점점 사라지고 생산성과 성 장율은 1%에 수렴하고 있다. 불평등을 극복하고 민생 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도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사회공유소득제와 같은 개혁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극우 신자유주의 검찰 독재 정 권이다. 강성 신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의 안팎에 포진하 여 자본과 기득권 동맹을 위하여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를 검찰독재와 시행통치를 통해 폭력적으로 관철시키 면서 극우이데올로기로 합리화하고 있다. 촛불에도 변 화가 없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맞은 근본 이유는 문 재인 정권에서도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득권 동맹이 그 대로 유지되고 민주당도 그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 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대한민국의 체제 와 정책을 전환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 중종반정에 참여했던 채수가 왜 사 형 위기에 놓이면서까지 소설 '설공찬전'을 통해 중종 을 거세게 풍자하였는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청춘 톡톡



양미영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수많은 콘텐츠 홍수 속에서 도 옳은 소식을 외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기자'라는 직업에 매료돼 학보사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간 다. 호기롭게 들어왔지만, 막상 잘 써지지 않는 글에 마 감 날 마지막까지 머리를 쥐어뜯고, 애써 적었지만 누 가 봐도 퍽 어설퍼 보이는 글이 부끄러워 퇴고를 보내 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덮어버린 날들이 바로 어제만 같 다. 그러나 어느 새 시간은 흘러 새로운 수습기자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한 학기다.

대학 언론의 위기는 내가 대학생이기도 전부터 화두 인 문제였다. 너무 오랜 시간 들어 왔고 기사를 적고 발 행하는 자리에 앉은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실감하게 된 다. 뉴스가 아니더라도 볼거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이 니 학보사에서 학교의 소식을 알린다는 건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다.

대학 언론의 존속 이유

먼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은 학생들의 궁금증 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기 어려울뿐더러 학교의 내부 사정을 일일이 알린다는 건 먼저 기자이기 앞서 수업을 듣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선 사서 적을 만드는 꼴이 되기도 하니 학교와 학생, 두 입장에서 줄 타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또한, 글을 적다 보면 학우들에게 닿기는 하는지 의 문이 들기도 하고 때론 막막하게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학보사의 존속에 대한 이유는 매달 신문을 발행할수록 선명해지는 것 같다. 대학의 소식은 학교에서 삶을 그 려나가는 학생인 우리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발간한 조대신문 1161호에는 광주 내 대학 의 가장 큰 숙제와도 같았던 '글로컬 30' 탈락에 관해 작성했다. 조선대는 4월에 발표된 예비 선정에서부터 진작 떨어진 데다 직접적으로 개입한 담당자가 아닌 이 상 이러한 기사를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사서 학교에 적을 만드는 꼴이 아닌 지 생각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사를 적기로 결심 한 건 이 기사만큼은 다른 대학 학생들도, 하물며 우리 대학 학생이라도 할 수 없는 오직 학보사 기자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께 몇 차례 메

일을 보내고 교수평의회를 드나들며 글로컬 30 탈락의 원인이 단순히 전략이 미비하다는 것 이상의 문제, 학 교 내부 사정에 깊숙이 알게 됐고 이러한 내용을 기사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교와 신문사에 관심을 갖고 있 는지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알기엔 더욱 어렵다. 그렇지만 신문의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학우들 의 눈길을 직감할 때나, 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신문이 줄어든 모습을 보고 나면 단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라도 기사를 적어내야겠다고 다시금 다 짐하게 된다.

졸업까지 한 학기만 남겨둔 지금 앞으로 얼마나 기사 를 적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사를 적게 될지는 모 르겠다. 하지만 단 하나의 기사만 적을 수 있다 하더라 도 학보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주저 없이 뛰어들고

특별히 올해 8월에는 1954년에 창간된 조대신문이 70주년을 맞는다. 민족 대학 건설에 이바지, 대학 언론 창달에 기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라는 사시 아래 학내 올바른 이념을 구현하고 참다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학 언론의 역할을 감내하는 조대신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 고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여수상공회의소는 1940년 설립된 지역 유일의 종합 경제단체로서 여수지역 상공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지 역사회의 균형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심에 여수국가산단이 함께 하고 있다.

여수 국가산단은 1967년 여천공업기지 및 호남정유 기공을 시작으로 1998년 여천국가산단 준공, 이어 2001년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많은 기업인의 노력과 여수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내 최 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로 발전했다.

여수국가산단은 2023년 말 기준 약 84조원의 생산 과 318억달러의 수출, 그리고 2만 5000명의 고용을 창 출하고 있다. 여수시가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는 2023 년 약 3조4000억원으로, 전남도가 납부한 국세 총액 5 조5000억원의 6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수시 지방세 징수 현황은 2020년 2800억원 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4000억 원까지 증가됐고, 이중 약 48.5%인 1940억원이 여수 국가산단에서 징수되고 있다. 이는 여수시 운영을 비 롯한 주거환경, 사회복지, 주민편익 및 복지 사업비로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자급 률이 100%를 향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 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의 영향으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의 영업손실이 증가 추 세로 올해 여수시 지방세 징수금액이 급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로 말미 암아 2024년 5월 여수 지방세 징수액은 1220억원으로 지난해 5월 2339억원 대비, 세수 격차가 무려 111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은 대내외 요인에 의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각종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석유 화학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수국가 산단 주요 기업의 2024년도 1분기 영업실적을 보더라 도 A사 312억원, B사 189억원, C사 1171억원의 적 자를 기록하고 있어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것이 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석유 산유국인 중동의 대형 석 유화학 프로젝트다. 사우디, UAE, 오만 등에서 국내 생산원가의 3분의 1 수준인 t당 100달러 수준으로 에 틸렌 등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러한 생산량은 한국 주 요 6대 기업 생산량의 합계 보다 많은 양으로, 장기적 인 위기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안정적인 여수시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 영 안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업과 시민 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

우리 지역의 고용, 생산, 재정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 소되지 못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이 곧 우리의 자산 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지역사 회와 여수국가산단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

여수국가산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지역경제활성 화와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 있기에 이러한 석유화학산 업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하다. 특히 여수상의는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체화 하기 위한 목표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으로 좋은 일 자리 창출과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 중, 조직 구성원이 보람을 느끼는 기업문화 조성, 친환 경 경영실천, 지역과 함께 성장이라는 여수신기업가정 신 5대 과제를 설정, 적극 실천할 것이다.

여수상의와 여수국가산단의 기업은 시민이 기대하 고 시민이 공감하는 신 기업가정신운동을, 시민은 기 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사랑은 동을 실천하는 것을 제언한다.

여수국가산단 위기극복을 위한 대 시민 기업사랑운 동을 통해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기업문화를 조성, 지 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여수국가산단이 되도록 여수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여수상의도 헌신적으로 노력하 겠다. 여수국가산단의 미래가 여수의 미래라고 생각하 며, 지역사회와 여수국가산단이 서로 상생을 통해 여 수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

社說

'가치 경영' 선언한 HS효성 출범에 기대 크다

표방한 HS효성이 어제 공식출범했다. 신 설 지주사 HS효성을 이끄는 조현상 신임 대표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치 또 같이'로 내걸고, 독립경영을 위한 닻을 올렸다. 조 신임 대표는 전통적인 출범식 대신 첫 공 식 행사를 임직원과의 소통의 장으로 치 렀으며,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격식과 절차보다는 소탈한 차림으로 화합 하고 어울리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 눈길 을 끌었다.

조 신임 대표는 부친 고 조석래 효성그 룹 명예회장이 2017년 건강상 이유로 경 영에서 물러난 뒤,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형제경영을 이어오다가, 그룹 분 할을 통해 독립경영에 나서며 사실상 제2 의 창업을 하게 됐다. 조 신임 대표는 효 성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타 운홀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 시즌 1'을 개최, 직원들에게 직접 HS효성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는 임직원들 간 소통을 강화

소통과 나눔을 기반으로 '가치 경영'을 하고,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는 신임 대표의 의지라고 HS효성은 설명 했다. 타운홀미팅은 전 세계 자회사 임직 원 1000여 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가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청바지와 후드집 업 차림으로 임직원 앞에 선 조 신임 대표 는 "HS효성은 주주와 고객, HS효성 가 족, 협력사, 지역 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 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함 께 성장해 나가는 '가치 경영'을 펼치겠 다"고 강조했다.

> 이후 다음날 조 신임 대표와 임직원 30 여 명은 장애인 스마트 팜인 '푸르메소셜 팜'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조 신임 대표 는 "HS효성의 첫 외부 행사를 우리보다 남을 위해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며 사회적 책무를 중요시할 것임을 내비쳤다. 첨단 소재분야와 AI·데이터 결 합 신사업 등 다양한 미래 사업에 도전할 HS효성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가 커지고

광주·전남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 절실하다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 악한 근로 환경과 산재에 노출돼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레)의원이 고 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광주·전남지역 외 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 난 5년(2019~2023년)새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총 29명 (광주 5명, 전남 24명)에 달한다. 산업재 해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도 2019년 241 명에서 2023년 2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 97 명이 안전사고로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 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3D' (힘 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에서 산재도 두 드러진다. 전남지역 '제조업' 분야 사고 사망자는 5년간 10명, 부상자는 259명에 달했다. 위험도 높은 건설업 분야에서 사 망자 11명, 부상자가 216명에 달했다. 광 주 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자 3명, 부상자

244명이 나왔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12.1%가 외국인 노동 자라는 점이다. 한국인 노동자보다 사망 사고가 3배 가량 많다는 방증으로 노동계 는 해석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광주·전남지역에 서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한 탓에 외국 인 노동자 없이 제조업은 물론 농업까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광주·전남에 등록 된 외국인 노동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불 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총 1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광 주·전남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숨진 화성참사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당국과 자치단체,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산 업현장에서 희생되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 기 위해 외국인 노동 환경 전반을 재검토 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

나의 살던 고향

어린 시절, 명절이면 고향 마을 입구에 서 큰 집·외갓집까지 가는 200m는 설레 임으로 들뜬 거리였다. 가기 전 시외버스 정류장 앞 구멍가게는 "많이 컸네"라며 이 것저것 쥐어주던 마을 어르신을 만나던 공간이었다. 마을 청년회관은 멍석을 깔 고 윷놀이를 하는 부모님 또래 청년 삼촌 이 "맛있는 거 사먹어"라며 용돈을 쥐어주 던 곳이었다. 청년회관 지붕에는 삼촌들

이 내놓은 마을 발전 후원금이 적힌 종이

가 빙 둘러 붙어있던 기억이 여전하다.

부모님 따라 100가구 남짓한 마을을 돌다 담

너머로 삐죽 나온 가지 에 걸려있던 감·밤 등을

땄던 신기함도, 마을 입구에 있던 공동 우 물 물을 길어보겠다며 밧줄로 묶여있던 두레박을 내려 이리저리 흔들어댔던 재미 도 잊히질 않는다.

'나의 살던 고향'이 달라졌다.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이 미경) 책의 그림과 비슷했던 구멍가게를 지키던 동네 어르신도 사라졌다. 마을 회 관을 찾는 사람은 손으로 꼽는다. 고흥의 경우 20~39세 인구(2023년 2952명)가 10년 전인 2003년(9104명)에 견줘 무려

67.6%나 줄었다.

동네 감 나무는 기후 변화로 더 이상 열 리지 않고 우물은 폐공된 지 오래다. 하루 에 8km를 걸어 다녔다는 부모님 모교는 텅 비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0일 내놓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은 우리 고향의 '소멸'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올 3월 기준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0%)에 달 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광양을 제

> 외한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90.9%)이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기반이 무너지는 것

으로 해석되는 '소멸고위험지역' (0.2 미 만)이 11곳에 이른다.

수도권은 만원이다.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1966년)가 쓰여졌을 때보다 더 '만 원'이다. 지난 2019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체 인구(5184만 9861명)의 50%(2592만 5799명)를 넘어서더니 올해 50.8% (2603만 3235명·3월 말 기준)에 달할 정 도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 유다.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则日報

편집국안내

치 부 220-0652

편 집 부 220-0649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 FAX 222-4918〉

부 220-0661

부 220-0692

부 220-0693

문 화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